

2014. 6. 21. 지방직 9급 국어 총평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정채영

2014 지방직 시험은 2013년과 달리 문학 분야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시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 시험이라 할 수 있다. 2013 시험은 지방직 시험의 경향답게 국가직 시험에 비해 고전 문학 작품이 많이 출제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2014 지방직 시험은 국어 생활 분야가 12문제이고 비문학 분야가 8문제이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경향 파악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어생활 분야 중 문법 문제는 형태론에 나오는 형태소의 분석과 품사의 파악이 출제되었다. 의미론에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찾는 문제와 정서법에서 고쳐 쓰기의 유형이 출제되어 모두 4문제가 문법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어문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사전의 등재 순서 등 5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문규정은 전통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파악을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속담 1문제와 한자성어 2문제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법을 익혀 두는 것도 중요하다.

비문학 분야는 일치하는 정보의 확인, 글의 논리적 배열,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고, 추론적 이해가 2문제 글의 중심 내용 찾기가 2문제 출제되었다. 비문학 독해는 공무원 독해의 유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문학 분야의 출제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비문학과 문학을 ‘독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문법’과 ‘독해’ 이 두 유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1.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② 붉은 콩에 싹이 날까?
- ③ 빛 좋은 개살구
- ④ 똑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정답 ③

해설 ‘빛 좋은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제시문에서 음식이 보기와 달리 너무 맛이 없었다고 했으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문맥적으로 적절한 속담이다.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붉은 콩에 싹이 날까?’는 불에다 붉은 콩은 싹이 날 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주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똑배기보다 장맛이 좋다.’는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②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 ③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 ④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답 ②

해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화제의 도입 부분으로 우리 문화의 현실과 전통 계승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은 전통의 본질과 계승의 문제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논지의 핵심은 전통과 계승이므로 ②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가 생략된 정보에 해당한다. ① 전통과 서구 문화와의 관계, ③ 전통의 변화, ④ 전통과 서구 문화와의 차이는 모두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답이 될 수 없다.

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어제 선생님을 봔습니다.
- ②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저요.
- ③ 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데요.
- ④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정답 ②

해설 ① 봤습니다 → 뵈었습니다 / 뵈었습니다

③ 예뻐졌데요 → 예뻐졌대요

④ 쌍둥이에요 → 쌍둥이이에요 / 쌍둥이이어요

6.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① 서리지탄(黍離之歎)
- ② 만시지탄(晚時之歎)
-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 ④ 비육지탄(髀肉之歎)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은 원천석이 쓴 시조로 폐허가 된 고려의 왕궁에서 왕조 멸망의 한을 노래한 회고가의 전형이다. ‘서리지탄(黍離之歎)’은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에는 기장만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며 이르는 말이므로 이 시조의 정서와 가장 가깝다.

②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③ ‘망양지탄(亡羊之歎)’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④ ‘비육지탄(髀肉之歎)’은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어 풀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도 잡초로 가득하구나.

오백 년의 빛나던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석양 사이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을 감출 수가 없구나.

7. ㉠~㉢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시절에는 공부에 쫓겨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꼭 찾아뵙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①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③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④ ㉣: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체 ‘조심하세요’를 사용한다.

정답 ④

해설 ‘조심하다’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다는 뜻의 동사로, 동사는 명령문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조심하다’가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에 제시된 두 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은 앞 문장과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긴밀성을 해친다.
- ④ ㉣은 전체 제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해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핵심어는 ‘관용구의 의미’인데, ㉣은 ‘전통 문화가 표출된 관용어의 의미’이므로 통일성을 위배하는 문장이다.

- ① 핵심어 ‘관용구’에 대한 정의 형식의 문장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
- ② ㉡은 관용구의 적절한 예이므로 다른 예시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
- ③ ㉢은 앞 문장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긴밀성을 해치지 않는다.

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 ② 불별더위[불뻬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 ③ 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온맵씨]가 난다.
- ④ 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공뉴]도 좀 사 오너라.

정답 ②

해설 ‘불뻬더위’의 발음은 ‘[불뻬더위]’가 아니라 ‘[불뻬더위]’이다. 일차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불뻬]가 되고, 이차적으로 된소리되기(경음화)의 적용을 받아 [뻬위]가 된다.

10.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정답 ④

해설 '절차탁마(切磋琢磨)'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이다. '갈다'는 뜻의 '마(磨)'로 표기한다.

- ① 마이동풍(馬耳東風):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② 주마간산(走馬看山):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 ③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

12.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 ① 리포트, 서비스, 위크숍, 콤플렉스
- ② 색소폰, 주스, 텔레비전, 판타지
- ③ 심포지엄, 로켓, 앙케트, 타월
- ④ 난센스, 리더십, 싸인, 과일

정답 ①

해설 ② 주스 → 주스

③ 로켓 → 로켓

④ 싸인 → 사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 ① 욕이 입에 배어 큰일이다.
- ② 그는 속이 너무 배어 큰 인물은 못 된다.
- ③ 갓난아이 몸에는 항상 젖내가 배어 있다.
- ④ 이 책에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

정답 ④

해설 '배다'의 문맥적 의미 중 제시문에 사용된 뜻은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는 것이다. ④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쓰임이다.

①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② 생각이나 안목이 매우 좁다.

③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

14.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되었다.
-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 나를 보기 위해 왔다?

① 만남, 한, 뿐

② 한, 뿐

③ 한, 뿐, 보기

④ 만남, 보기

정답 ②

해설 ‘한’과 ‘뿐’이 명사이다.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에 쓰인 ‘한’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에 쓰인 ‘뿐’은 다만 어떠한가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다. 나머지 ‘만남’과 ‘보기’는 서술성을 가진 동사의 활용형이다.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art)’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ars)’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Kunst)’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콘넨(können)’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기술(영어: fine arts, 프랑스어: beaux-arts)’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 예술 이외의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예술’과 ‘기술’의 차이

② ‘예술’의 변천과 그 원인

③ ‘예술’의 속성과 종류

④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정답 ④

해설 첫 번째 문단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art)’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는 ‘예술의 어원’에 해당하고, 두 번째 문단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18세기라는 부분은 ‘예술의 의미 변화’에 해당한다.

1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 ② 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 ③ 흠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 ④ 단팔죽이라도 가져와야지.

정답 ①

해설 ①의 형태소는 '남-(어간), -기-(접사), -어(어미), 지-(어간), -ㄴ(어미), 적(명사), 도(조사), 물리-(어간), -치-(접사), -었-(어미), -겠-(어미), -네(어미)'로 12개이다.

- ② 너, 를, 위, 하, 여서, 땀, 을, 흘리, 었, 어: 10개
- ③ 흠쳐, 어, 가, 았, 을, 수, 도, 있, 겠, 군, 요: 11개
- ④ 달, ㄴ, 팔, 죽, 이라도, 가지, 어, 오, 아야지: 9개

1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라)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라)－(가)－(나)
- ④ (다)－(라)－(나)－(가)

정답 ②

해설 (가) 상품과 시장의 관계를 화제로 제시한 도입 문단이다.

(다) 상품의 독자적 인격체화를 제기하여 논지를 이어가는 문단이다.

(라) 시장 법칙의 지배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제시한 문단이다.

(나) 상품과 시장 법칙에 대한 마무리 문단이다.

18.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조금 귀찮더라도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들 중에는 앞으로 오백 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평소에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일회용 물품들 중에는 앞으로 오백 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답이 된다.

1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천 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백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

- ①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 ②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 ③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④ 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정답 ①

해설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는 부분을 통해 ①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은 잘못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2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흠여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켁켁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 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걷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라.
- ②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 ③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 ④ 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주의 집중’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집중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주의하라고 진술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온전한 주의’ 즉 ‘주의 집중’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